

올 광주·전남 아파트 분양가 상승률 ‘전국 최고’

광주 3.3㎡당 2131만원, 30% ↑
전남지역 1405만원, 24% 올라
전국 상승률 18% 16년만 최고
“원자재값 상승, 내년에도 지속”

올해 아파트 분양가 상승률이 16년 만에 최고 상승폭을 기록한 가운데 광주와 전남지역 아파트 분양가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부동산R114 통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7일까지 전국 아파트 분양가는 3.3㎡당 평균 1801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연간 평균 분양가인 1521만원 대비 18.4% 오른 수치다. 전용면적 84㎡ 타입 기준으로 한 채에 평균 9500만원 이상 오른 셈이다. 연간 상승률을 보면 2007년(23.3%) 이후 1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자료 집계를 시작한 2000년 이후 2003년(19.9%)과 2007년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기록이다. 또 2021년 6.5% 하락한 이후 최근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 때문에 최근 수년간 부동산 시장에 ‘분양가는 오늘이 제일 싸다’는 말이 확산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와 광주, 전남 지역 등 세 지역만이 평균치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전년 1578만원에서 올해 1869만원으로 291만원, 약 18.4%가 올랐다. 같은 기간 서울이 0.2%, 인천이 -0.1%를 기록하며 약보합세를 보인 것과 달리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지방에서는 광주와 전남의 오른세가 두드러진다. 광주는 1640만원에서 2131만원으로 약 29.9%, 491만원이 오르며 전국에서 가장 큰 상승세를 보였다.

전남은 1133만원에서 1405만원으로 약 24%가 상승해 광주의 뒤를 이었다. 다만 전남지역에 올해 분양한 총 4개 단지 중 장성군에 분양한 3곳이 사실상 광주생 활권으로 분류되는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소재 단지로 확인됐다. 광주가 전국 분양가 상승세를 견인한 셈이다. 반면 대구는 5.7%, 울산은 7.3%의 하락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내년 이후로도 분양가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공사 원자재값이 여전히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어서다

업계에 따르면 시멘트 가격은 지난해에 만 14% 가량 상승했으며, 올 11월에도 6% 추가 상승한 바 있다. 레미콘 역시 지난 3분기 대비 올 3분기 약 19%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계속된 원자재값 상승에 따라 아파트 분양가 추가 상승도 피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한동안 분양가 상승세는 불가피하다”며 “인기 지역의 경우 분양가가 더 오르기 전에 ‘막차’를 잡으려는 수요자들의 경쟁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최권범 기자 kwonbeom.choi@jnilbo.com

광주은행, 치매환자 실종 예방·신속 발견 지원

광주·전남에 배회감지기 600대

광주은행은 최근 치매환자의 실종 예방·신속 발견을 위해 광주경찰청,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배회감지기 무상 보급 사업’ 협약체결과 함께 사회적약자 지원 성금 1000만원을 광주경찰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협약을 통해 세 기관은 실종 우려가 있는 지역 거주 환자 300명에게 배회감지기를 보급 및 관리할 예정이다. 광주은행은 배회감지기 구입 및 유지 비용에 힘을 보

태고,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급대상자 선정과 기기 보급 및 관리, 광주경찰은 지급된 배회감지기를 활용해 실종 환자의 수색 및 발견에 힘쓰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광주은행은 지난달 29일 광주시에 지역 치매 어르신 대상 배회감지기 지원 후원금 약 9000만원 상당의 배회감지기 300대를 지원한 바 있으며, 추후 전남도에도 약 9000만원 상당의 배회감지기 300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이 자리에서 광주은행은 광주지역의 사회적약자 및 범죄 피해로 인해 고통

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을 위해 써달라며 광주경찰청에 1000만원의 성금을 전달했으며, 지난 2017년부터 현재까지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1억5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치매 환자의 실종 예방 및 신속 발견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광주은행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펼침으로써 광주·전남 대표은행의 사회적 책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권범 기자



광주은행이 최근 치매환자의 실종 예방·신속 발견을 위해 광주경찰청,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배회감지기 무상보급 사업’ 협약체결과 함께 사회적약자 지원 성금 1000만원을 광주경찰청에 전달했다.

광주은행 제공

제 1097회 로또						
당첨번호						2등 보너스 번호
14	33	34	35	37	40	4
등위	당첨방법					당첨금
1등	6개 숫자 일치					38억6429만원
2등	5개 숫자+ 보너스 숫자 일치					6728만원
3등	5개 숫자 일치					171만원
4등	4개 숫자 일치					5만원
5등	3개 숫자 일치					5000원

광주상의, 연말정산 강좌 마련

광주상공회의소는 12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7층 대회의실에서 ‘2023년 귀속 연말정산 대비 실무강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12일에 실시되는 교육과정은 초급 실무자의 눈높이에 맞춰 △연말정산 사전 준비 및 절차 △근로소득의 개요 △연말정산 소득공제 △연말정산 세액공제 등 연말정산에 필요한 내용을 각 과정보로

세분화해 새로 개정된 사항과 주의사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20일에 개최되는 중급 실무자 대상 강좌는 △과세표준 구간 변경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상향 △월세 세액공제 주택기준 완화 등 전년과 달라지는 항목들 중심으로 약 4시간에 걸쳐 진행된다. 신청 및 자세한 내용은 광주상의 홈페이지(www.gjcci.or.kr)를 참고하거나 회원사업본부(062-350-5883)로문의하면 된다.

곽지혜 기자

현대차, 성 김 前 대사 자문역 위촉

현대자동차는 미국 외교 관료 출신의 성 김(사진) 전 대사를 자문역으로 위촉한다고 10일 밝혔다. 최근까지 미국 주인도네시아 대사와 대북정책특별대표를 겸직 수행한 성 김 전 대사는 미국 국무부에서 은퇴한 후 내년 1월부터 현대차에 합류한다. 성 김 전 대사는 현대차 자문역을 맡아 현대자동차그룹의 해외 시장 전략, 글로벌



별 통상·정책 대응 전략, 대외 네트워킹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성 김 전 대사는 로스앤젤레스(LA) 카운티 검사로 공직 활동을 시작해, 1988년 외교관으로 이직한 이후 현재까지 외교관의 길을 걸어왔다.

곽지혜 기자

금감원 Q&A

문 사례 1> 피해자 A씨는 은퇴 후 귀농에 관심이 있어 대형 컨벤션에서 개최하는 ‘귀농 박람회’에 참석했다. 박람회에서 홍보부스를 운영하던 ○○영농조합은 1구좌(6000만원)를 투자하면 인삼 재배 등으로 수익을 창출 월 100만원, 연 1200만원의 확정 배당금을 지급한다고 홍보하며 투자자를 현혹했다. 투자금은 3년후에 전액 반환(100% 원금보장) 하며 이를 보증하기 위해 제도권 금융회사인 ●●보증금융사(사칭)의 지급보증서를 발급·교부해준다고 했다. 피해자 A씨는 영농조합의 확정 배당금, 가짜 지급보증서 등에 현혹돼 은퇴자금 중 일부인 6000만원을 투자했다. 이후 수익금 지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영농조합에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두절됐다. 사례 2> 피해자 B씨는 2023년 3월경 지인의 소개로 C업체의 투자설명회에 참석했다. C업체는 친환경 종이 판매 및 해외 선물 거래 등으로 확정수익을 낼 수 있으며 원금을 보장하기 위해 ○○투자금융회사의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준다고 하며 거액 투자를 유도했다. 또한 투자자를 모

노후자금 노리는 불법 유사수신 업체 조심하세요

집하기 위해 피라미드 형태의 다단계로 직급별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며 지인 소개를 권유했다. B씨는 ○○투자금융회사의 상호 및 홈페이지 등을 보고 정식 금융회사로 오인해 가짜 지급보증서를 믿고 은퇴자금 일부인 2600만원 투자 및 보증서 발급 수수료 130만원 납입했고, 고액의 소개 수당을 지급한다는 말에 현혹돼 가족 포함 총 7명(투자금 약 2억1000만원)을 소개했다. 이후 사업 진행이 되지 않자 연락을 시도했으나 2023년 6월 C업체 및 ○○투자금융회사는 연락이 두절됐다. 사례 3> 피해자 D씨는 2022년 5월경 지인의 소개로 ◆◆◆조합의 직원 E를 소개 받아 현장 투자설명회에 참석했다. E씨는 쇼핑물 플랫폼 등을 통해 고수익을 낸다고 홍보하면서 평생 연금처럼 매월 확정 수익금(매일 0.2% 수익을 복리로 지급)을 받을 수 있다며 투자를 유도했다.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해 피라미드 형태의 다단계로 고액의 직급별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며 지인 소개를 권유했다. D씨는 ◆◆◆조합 사업을 믿고 은퇴자금

일부인 3000만원을 투자했다. ◆◆◆조합은 수개월간 확정 수익금을 지급하다가 업체가 개발한 ◆◆◆월렛 플랫폼을 이용해 자체 개발 캐시를 수익금으로 지급한다고 통보했으나, 이후 현금화하려고 하자 전산장애 등을 사유로 차일피일 연락을 피하다가 연락이 두절됐다. 위 사례는 금융사기 취약계층인 어르신 대상 불법 사금융 피해 사례를 보여준다. 불법 업체들은 어르신들이 은퇴후의 삶에 관심이 높은 점을 이용해 전국 각지에서 ‘은퇴 박람회’(현장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 접근을 하거나, 조합 사업을 가장해 ‘평생 연금’처럼 배당금을 지급한다고 현혹하면서 어르신들의 소중한 노후자금을 노리고 있다. 또한, 어르신들은 오랜 기간 신뢰를 쌓아온 지인들이 많다는 점을 이용해 특히 ‘모집수당’을 제공한다는 점을 강조하거나, 어르신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금융회사를 사칭해 ‘가짜 지급보증서’를 제공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어르신들이 속기 쉬운 불법 유사수신 사기 예방을 위해 금융감독원에서 안내하는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대해 알아보자.

답 첫째,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이 원금 보장, ‘모집수당’ 등을 미끼로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도 불법 유사수신 사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둘째, ‘현장 투자설명회’를 통해 장래 전도유망한 사업이라고 현혹하더라도 반드시 사업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고수익(High return)에는 항상 그에 상응하는 높은 위험(High risk)이 따른다’는 평범한 진리를 명심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불법 유사수신 업체는 어르신들에게 생소한 가상자산, 신기술 등 일반인들이 확인·검증하기 어려운 사업내용으로 투자를 유혹하므로 투자 전 사업의 실제 등을 충분히 확인하자. 셋째, ‘조합’ 사업을 가장해 확정 배당금을 제공한다고 현혹하는 경우 불법 유사수신 업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생활주변에서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 조합 사업을 가장해 매월 배당금 지급을 약속하는 등 상식에 맞지 않은 조건을 제시하면서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는 불법적인 유사수신행위일 가능성이 높다. 조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지자체에 설립 신고를 해야하며, 지자체에 설립

신고를 했더라도 원금 및 확정 배당을 약속하면서 출자금을 모집하는 것은 불법임을 알아두자. 넷째, 금융회사를 사칭하면서 ‘지급보증서’를 제공하는 경우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업자와의 거래로 인한 피해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대상도 되지 않아 피해 구제가 어려우므로 투자 전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fine.fss.or.kr)하자. 한편, 일부 허위 지급보증 업체는 제도권 금융회사 상호를 도용하며 가짜 지급보증서를 제공하고 있어, 불법 유사수신 사기 등이 의심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 대표번호로 전화해 지급보증서 진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자. 다섯째, 불법 유사수신 업체로 의심되는 경우 신속하게 신고해야 한다. 거래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요구를 하거나 사기 의심시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신속히 수사기관에 신고하자. 특히, 유사수신 행위가 의심될 경우 반드시 투자 권유 등 관련 증빙자료(녹취, 문자메시지 등)를 확보해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금감원 광주전남지원·1332